

한국어, 영어, 일본어의 음성, 음운 차이에 대한 연구¹⁾

– 음성학습 모델(SLM)과 지각동화 모델(PAM)에서의 L1의 영향 및 L2
경험과 제3의 요소인 유표성(markedness)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시균(군산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몇 가지 실험들 |
| 2. 기존의 이론들과 L2 음성/음운 습득의
중요 요소 | 4. 논의 |
| | 5. 결론 |

1. 서론²⁾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자신의 모국어(L1)인 한 개 국어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L2) 1-2개는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외국어를 습득³⁾할 때 배우는

-
- 1) 이 논문은 2013년도 군산대학교 교수장기국외연수경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 본고의 미진한 부분의 지적과 조언을 통해 본고가 탄탄한 논문이 되게 해 준 익명의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본고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오류도 오롯이 필자의 몫임을 밝힌다.
 - 3) Krashen(1978, 1981)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learning)과 습득(acquisition)을 구분하였다. 학습은 의식적으로 배우는 언어지식이고 습득은 무의식적으로 익히는 언어지식이라고 하여 구별하였고 학습된 지식은 습득된 지식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후 학자들의 주장(McLaughlin, 1987, 1990; Ortega, 2009)은 학습된 지식도 습득된 지식으로 바뀔

여러 부분들이 있다. 음성/음운, 어휘, 문법, 의미 등이 그것들이다. 이런 여러 부분들을 중심으로 L2 학습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L2를 습득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분야도 새로운 학문으로 20세기 말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SLA와 관련한 여러 분야 중 L2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고, L2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L2 학습자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작용하는 것은 음성/음운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L2를 습득할 때 가장 먼저 접하고 중요한 부분인 음성/음운에 초점을 맞추어 L2를 습득할 때 영향을 미치는 L2 경험, L1의 영향, 유표성 등의 요소들 중에서 L2 학습자의 L2 음 학습의 시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어떤 요소가 L2 학습자의 L2 음 습득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에 서는지에 대해 기존의 이론들(음성학습모델, 지각동화모델)을 통해서 고찰할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화자가 다른 언어(L2)의 음성, 음운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언어(interlanguage) 현상과 관련한 실험 사례들을 통해 이들 이론들이 모든 부분에서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미흡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우선 따져볼 것이다. 만약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2. 기존의 이론들과 L2 음성/음운 습득의 중요 요소

L2의 음성/음운을 습득할 때 어느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요소들이 L1의 전이(L1 transfer)⁴⁾와 L2 경험(experience)⁵⁾이다⁶⁾. 1950년대 Lado(1957)에 의해

수 있다는 것이 대체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학습과 습득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두 용어를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도록 하겠다.

- 4) L1의 영향을 중시했던 언어학자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언어습득이 계속적인 반복과 연습을 통한 습관형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언어습득이 습관형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미 습득된 습관인 L1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즉 L1이 간섭(interference)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1의 체계가 L2의 체계와 유사할수록 L2를 배우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차이가 클수록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를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를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 또는 간섭(interference)이라고 한다. 언어 간 간섭에는 배제적(preclusive) 간섭과 침입적(intrusive) 간섭이 있다. 배제적 간섭은 L1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 때문에 L2를 배우는데 장애가 오는 경우인데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배울 때 관사나 관계 대명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해당된다. 침입적 간섭은 L1과 L2에 어떤 비교 요소가 모두 존재하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 L2를 습득하는 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어순(word order)이 존재하지만 어순의 차이로 양 언어화자 간에 상대방의 언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해당된다(정양수, 김영은, 2005: 19-21).

이와는 반대로 인지주의를 신봉하는 생득이론에 기반하는 언어학자들은 L2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성인들도 아동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생득적인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을 사용하여 L2를 배울 것이라고 주장한다(정양수, 김영은, 2005: 36-42).

- 5) 여기에서의 L2 경험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식적인 교실 학습(classroom learning)을 동반하는 L2에 노출되는 기간(length of residence in L2 speaking countries: LOR)을 의미한다. Flege & Liu(2001: 527)에 따르면 1) 어말 영어자음 지각실험, 2) 144개의 문법 항목에 대한 문법적 적합도 판단실험, 3) 45개의 문법 항목에 대한 청취 이해 실험에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L2 경험이 높은 그룹, 즉 LOR이 긴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직업이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LOR이 상대적으로 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세 실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L2 경험이라는 요소는 공식적인 교실 학습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6) 이외에도 L2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L2를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age), L2를 배우는 언어적 환경, 학습자의 인지적(cognitive) 요소, 학습자의 외국어 습득 적성(aptitude), 동기(motivation) 등의 다른 요소들(Piske et al., 2001; Flege & Liu, 2001; Ortega, 2009)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중요 요소 이외의 다른 조건들을 유사하게 하기 위해 피실험자를 성인학습자, 그 중에서도 주로 외국어를 배우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층으로 제한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 7) 각주 4)에서 언급했듯이 L1의 체계가 L2의 체계와 유사할수록 L2를 배우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외국어를 배울 때 긍정적인 부분은 건드릴 것이 없고 부정적인 부분만 규명해서 가르칠 때 적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들이 L2를 학습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이들은 L1과 L2의 체계의 대조분석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예측하고 그것을 L2교육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Whitman & Jackson(1972)은 일본어와 영어체계 간의 대조분석을 통해 일본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겪을 어려움을 예측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음성/음운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오류 예측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잘못된 오류 예측에 대해서 생득론자들의 공격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대조분석의 시도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학자들은 대조분석을 예측에 적용하기 보다는 나타난 오류 결과를 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만 대조분석 기법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물러서게 되었다(정양수, 김영은, 2005: 22-23).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특히 L2 학습 초기에 L2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 작용이 거의 작용하지 못하고 L2 음의 음향적/음성적 특징에 의존하여 그것과 같거나 유사한 L1 음을 찾기 위해 L1의 음성/음운 체계에 기대는 L2 음성/음운 학습 분야에서서는 현재도 여전히 CAH에 근거한 L2 음성/음운 습득 이론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L2를 습득할 때 L1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L1의 음운체계에 있는 말소리가 L2에도 있다면 그 말소리는 쉽게 습득될 것이고 L2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말소리는 L2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전통적인 CAH에 기반한 음성/음운 습득 이론은 이후 여러 학자들의 반론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이 Flege의 ‘음성학습 모델(Speech Learning Model: SLM)’과 Best의 ‘지각동화 모델(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PAM)’이다. 이 둘은 CAH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성/음운 습득 이론과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CAH에 기반한 이론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두 이론 모두 이론의 출발점을 ‘L1의 영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Flege(1987a, 1987b; Bohn & Flege, 1992)는 그의 SLM에서 L2 음을 세 개로 나누었다. ‘동일한(identical)’, ‘유사한(similar)’, ‘새로운(new)’ 음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음성/음운 이론과는 달리 L2에서 새롭게 인지(new)되는 음은 결국 L2 학습자들이 잘 습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L1 음과 ‘유사한(similar)’ 음은 그 차이⁸⁾가 크지 않아 L2 학습자들이 그 차이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음향적으로, 그리고 L2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에게는 인지적으로 차이가 있는, 대응하는 L1음을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습득하지 못할 것이라는⁹⁾ 것이다. ‘동일한(similar)’ 음은 대응하는 L1 음과 음운적으로 그리고 음성적/음향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배울 필요 없이 L1 음을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초기 SLM 이론은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이론에 신념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낀 L2 음성/음운 습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¹⁰⁾. Flege 자신도 자신의 이

8) Flege(1987a)는 ‘유사한(similar)’ 음을 ‘L2 phones have a counterpart in the L1(phonologically), but differ systematically from an easily identifiable counterpart in the L1.’라고 하여 음운적으로는 같지만 체계적으로는(systematically) 다른 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적’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의 실험들에서의 ‘유사한 음의 분류를 통해 이 ‘체계적’이라는 기준이 ‘음향적/음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Park, 1997:32-33).

9) 이때 ‘습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L2 모어 화자의 해당 L2 음에 대한 인지 및 산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10) Jun & Cowie(1994)는 그가 명확한 분류 기준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

론을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 다른 학자들의 지적과 자신의 실험에서의 반증 예를 통해 그는 초기 SLM을 수정, 보완하였다. Flege(1995: 239)를 통해 4개의 가정(Postulates)과 7개의 가설(Hypotheses)을 새롭게 세웠다. 그 중 가설7(H7)¹¹⁾이 본고의 논의에 있어 주목할 내용인데 L2를 습득하게 되면 결국 L2 모어 화자에 가깝거나 같게 조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L2를 학습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perception) 못하고 산출(production)하지 못했던 L2 음도 결국 L2 모어 화자에 가깝게 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L2 음성/음운 습득 초기에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L1의 전이가 L2 학습자들의 학습을 동반한 L2 경험이 늘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L2 경험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그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Best(1993, 1995; Best & Tyler, 2007)의 지각동화모델(PAM)도 L1의 전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Flege의 모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범주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SLM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첫 번째로 SLM이 산출(production)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PAM은 지각(perception)에 중점을 둔다. SLM은 L2 음을 학습하여 산출하는 데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에 PAM은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각 작용을 통한 L2 음의 L1 음에 대한 동화까지를 중점적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는 SLM이 모델 이름의 ‘학습(Learning)’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을 동반한 L2 경험을 L1의 전이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에 초

을 가했고 특정한 L1을 가진 L2 학습자들의 경우 L2를 쓰는 나라에 오래 거주해도 L2 음성/음운 습득에 진전이 없다는 실험결과(Flege, Bohn & Jang, 1997)가 나오는 등 초기의 SLM에 수정할 부분이 많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 11) “(L2) 음의 산출은 그것의 음성적 범주 특성에 중국적으로는 부합한다.(The production of a sound eventually corresponds to the properties represented in its phonetic category representation.)”
- 12) Flege와 동료들의 최근 논문들에서는 특히 ‘유사한 음(similar sounds)’과 관련하여 이것이 L1과 L2의 중간음인 ‘중간언어(interlanguage)’로 발현되는 경우(Fowler et al., 2008)와 L2 음을 L1 음으로 동화(assimilation)해서 산출하거나 L2의 음성범주가 새로 생성되는 경우 음성 영역 상에서 이 음성범주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L1 음의 거리를 더 멀리 두기 위해 해당 L1 음을 이화(dissimilation)시켜 산출하는 경우(Flege et al., 2011)를 실험을 통해 밝혀 발전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기 PAM에서는 원칙적으로 L2 경험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지각되는 L2 음들이 L1음과의 관계에서 동화되는 정도에 따라 그 지각의 어려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할 뿐이다. 하지만 Best & Tyler(2007)에서는 L2 음이 지각적 차이가 적을, 즉 유사성이 아주 큰 경우에는 L1 음에 동화되어 그 L2 음을 학습할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L2 음과 비교해서 범주 적합도에서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떨어지는 L2 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인지되고 학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최근에는 Best도 결국 SLM과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세 번째로 SLM이 L1음과 L2음의 1 : 1 대응을 통해 L2 음을 ‘동일한, 가까운, 새로운’ 음으로 판정하는 데 비해 PAM에서는 L2 음 두 개를 묶어 한 개의 L1 음 또는 L1의 음성영역과 대응을 시켜 L1 음과의 동화정도를 판정한 후 L2의 두 개의 음을 L2 학습자가 얼마나 잘 구별할지를 예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³⁾. 이 비교 방식의 차이가 두 이론이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자리 잡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L2의 음성/음운 습득과 관련한 대표적인 두 이론을 살펴보았다.

13) Best(1993: 296)는 다음과 같이 동화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1) 두 범주(Two Category: TC)는 두 개의 L2 음이 각각의 L1 음에 동화된다(각각의 L1 음소 범주로 지각된다). 2) 범주 적합도(Category Goodness: CG)는 두 개의 L2 음이 한 개의 L1 음에 동화되거나 각각의 L2 음이 L1음과의 유사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3) 한 범주(Single Category: SC)는 두 개의 L2 음이 한 개의 L1 음으로 동화되거나 두 개의 L2 음이 L1음과 유사성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 4) 범주화 불가능(Uncategorizable: UNC, Best(1995)에서는 UU로 변경)은 두 개의 L2 음이 언어음으로는 인식되지만 어떤 L1 음의 범주에도 동화되지 않는다. 5) 동화 불가능(Non-Assimilable: NA)은 두 개의 L2 음이 L1의 음성 범주 밖으로 벗어나고 언어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L2 학습자가 L2 음들을 구별하기 쉬운 순서는 ‘TC > NA=CG>UNC> SC’가 된다고 얘기했다. Best(1995)에서는 6) 비범주화 대 범주화(Uncategorized vs. Categorized: UC)가 추가 되었는데 두 개의 L2 음 중 하나는 L1 음에 동화되고 다른 하나는 언어음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어떠한 L1 음의 범주에도 지각되지 못한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구별하기 용이한 순서도 ‘TC>UC>NA>CG>UU> SC’로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Best & Tyler(2007: 27-30)에서는 SLM에서 중시했던 학습(learning)이라는 측면을 받아들여 성공적인 L2 음의 ‘인지적 학습(perceptual learning)’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수정된 PAM(PAM-L2)’을 제시하였는데 UC와 NA를 뺀 나머지 네 개만으로 수정된 이론을 제시하였다. TC의 경우는 정의를 변경해서 두 개의 L2음을 짝으로 묶는 방식을 버리고 ‘한 개의 L2 음의 음소 범주가 대응하는 한 개의 L1 음의 음소 범주의 등가음으로 인지된다’라고 하여 원래의 PAM의 TC의 설명에서 관점을 달리 했다. 대신에 이 L2 음이 다른 L2 음과 대조되어 짝을 이룬다면 이는 TC나 UC가 되어 두 L2 음이 잘 구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학습’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이 설명은 Flege의 SLM의 ‘동일한(identical)’이나 ‘유사한(similar)’ 음의 정의와 수렴하고 있다.

비록 두 이론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른 주장들을 펴고 있지만 큰 흐름상 두 이론을 관통하는 것들을 요약한다면 L2 학습자가 L2 음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L1 음의 전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학습을 동반한 L2 경험이 쌓이면서 L2 학습자들은 초기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L2 음들을 L2 모어 화자에 가깝게 인지하고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CAH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L2 음성/음운 습득이론의 예측보다 진일보했고 정교화 되어 여러 L2 음의 학습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학자들의 실험들에서 나타나는 실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음을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3장에서는 필자가 행한 몇 가지 실험의 결과들을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두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한 후 L1의 영향과 L2 경험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L2 학습자의 L2 음 습득에 작용하는지를 검증해 보고 이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짚어 볼 것이다.

3. 몇 가지 실험들

3.1. L1의 영향이 있음에도 L2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L2 음을 L2 모어 화자의 수준에 가깝게 습득¹⁴⁾ 하는 경우

L2 음을 학습할 때 해당 L2 음에 대해서 대응하는 L1 음이 있어 L2 음 습

14) L2 음을 L2 모어 화자의 수준에 가깝게 습득'한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L2 학습자가 산출한 L2 음이, 예컨대 모음의 경우 Formants, 길이, 강도 등에서 L2 모어 화자의 그것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접하는 경우인지, L2 학습자가 산출한 L2 음을 듣고 L2 모어 화자가 "이 음은 우리들이 발음한 음과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의 경우가 다 충족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지실험의 경우 L2 학습자가 L2 모어 화자가 산출한 L2 음에 대해 맞게 인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을 때와 산출 실험의 경우 (L2 학습 초기에 산출한 L2 음에 비해서) L2 경험이 늘면서 산출한 L2 학습자들의 L2 음이 L2 모어 화자의 해당 음에 음성적/음향적으로 현저하게 접근했을 때 L2 학습자들이 'L2 음을 L2 모어 화자의 수준에 가깝게 습득'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득 초기에는 그 L1 음을 L2 사용 환경에서도 대체음으로 사용하지만 L2 경험이 쌓이면서 해당 L2 음에 대한 음소 범주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Flege의 SLM에서는 ‘유사한(similar) 음’이 해당될 것이고 Best의 PAM에서는 ‘범주 적합도(CG)’ 동화가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들이 예측하는 유사한 음과 범주 적합도 동화는 본 절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다르거나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Flege는 유사한 음에 대해서는 L1의 영향으로 L2 경험이 축적되어도 해당 L2 음을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Best도 CG 동화 범주는 ‘훌륭한(excellent/very good)’ 식별력부터 ‘적당한(moderate)’ 식별력에 걸쳐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CG 범주의 식별력이 ‘적당한 식별력’에 머문다면 새롭게 L2 음의 음소 범주를 구축한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⁵⁾.

SLM의 ‘동일한(identical) 음’이나 PAM의 ‘두 범주(TC)’ 동화(Best & Tyler에서는 ‘일 대 일 범주 동화’)에 해당하는 음은 L2 음과 대응하는 L1 음이 음성적, 인지적으로 거의 동일해서 L2 학습자들이 해당 L2 음에 대한 새로운 음소 범주를 형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실제로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PAM의 ‘한 범주(SC)’ 동화도 본 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두 개의 L2 음이 해당되는 한 개의 L1 음과 비교하여 인지적으로 동등 정도의 같거나 다른 차이를 보여 두 개의 L2 음으로부터 대응되는 L1 음과의 상대적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해당 L2 음들에 대해 새로운 음소 범주를 형성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영어의 /l/과 /ɹ/¹⁶⁾을 학습하는 경우가 본 절에서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에는 한 개의 유음 /ㄹ/이 존재한다. 이 유음은 영어의 두 개의 유음인 /l/, /ɹ/과 유사해서 두 개의 영어 유음을 대체해서 쓰인다. 두 개의 영어 유음에 대해서 SLM의 ‘유사한 음’이 될 것이다. PAM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두 개의 영어 유음은 모두 한국어 유음 /ㄹ/에 동화된다. 따라서 CG나 SC의 동화 범주 가능성이 모두 있다. 한국어의 /ㄹ/

15) 만약 CG 범주 동화가 높은 식별력(very good) 쪽을 갖는다면 본 절에서 제시하는 경우의 결과를 예측하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영어에서 /ɹ/에 대응하는 철자는 ‘r’이다. 영어의 ‘r’은 ‘권설 접근음’으로 조음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음성 기호인 /ɹ/이 쓰여야 한다. /r/은 ‘전동음(trill)’을 의미한다.

을 다수의 학자들이 /l/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영어의 /l/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설정을 따르자면 한국어의 유음은 영어의 /l/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 CG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한국어 화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l/과 /ɹ/ 모두를 구별 없이 /r/로 대체해서 쓰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SC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Park(1997)은 영어 사용 국가인 호주에서 1년 내외를 머문 나이가 20대(그 중 한명만 만 18세)인 표준 한국어 구사자인 한국인 대학생, 대학원생, 영어연수생 10명에 대해서 영어의 유음 /l/과 /ɹ/에 대해서 인지 실험(identification test)을 실시했다¹⁷⁾. 인지 실험의 결과는 83.04%의 정확도였다(Park, 1997: 163). 이 정확도는 80%가 넘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가 호주에서 생활한지 1년 내외에 이미 L1 음의 영향을 극복하고 L2 음인 영어의 /l/과 /ɹ/의 범주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짧은 기간에 영어 유음들의 범주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배우면서 접했던 영어의 유음에 대한 경험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이 결과는 전술한대로 SLM과 PAM의 예측에서 벗어났거나 혹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결과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어의 유음은 음운 층위에서는 유음 /r/이 모든 위치에서 영어의 두 유음과 대응하지만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다. 어두에서는 음성적으로 영어의 두 유음을 구별하는 기제가 없다. 하지만 어두복자음이나 어중에서는 /l/과 /ɹ/을 구별할 기제가 분명히 있다(<표 1> 참조).

17) 인지 실험에 쓰인 단어는 어두 위치에서 'read/lead, row/low, rock/lock, right/light, red/led', 어두 복자음 위치에서 'broom/bloom, fruit/flute, crime/climb, pray/play, grass/glass', 어중 위치에서 'lorry/lolly, mirror/miller, correct/collect, arrive/alive, berry/belly'였다. 호주영어에서는 어말에서는 /ɹ/음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 위치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단어 외에 20개의 혼동 단어(distractors)를 포함해서 50단어를 2명의 호주인 남성 화자가 읽은 것을 2회 반복해서 집어 넣어 총 200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이 문항을 무작위로 섞어 인지 실험 단어가 녹음된 세트를 만들었고 실험 들어가기 전에 실험 단어들과 그 뜻이 쓰인 카드를 주어 피실험자들이 각 실험 단어를 잘 인지하고 실험에 임하게 했다.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녹음된 세트를 듣고 들은 단어를 답안지에 적었다. 항목 사이의 간격은 2초였고 50개의 항목이 끝나면 10초의 간격이 주어졌다(Park, 1997: 159-160).

〈표 1〉 영어 단어의 어두, 어두복자음, 어중에서 나타나는 /l/과 /ɫ/에 대해 반응하는 한국어의 유음 기제

	어두	어두복자음	어중
/l/	light 라이트	play 플레이	alive 얼라이브
/ɫ/	right 라이트	pray 프레이	arrive 어라이브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유음은 음소 층위에서는 영어의 유음 두 개에 모두 대응하지만 영어 단어에서 유음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두가 아니고 어두복자음이나 어중이면 /l/의 경우에는 설측음 [l](철자 ‘ㄹ’)로 대응하고 /ɫ/의 경우에는 탄설음 [ɫ](철자 ‘ㄹ’)로 대응한다. 제3의 영향 요소인 ‘단어에서의 유음이 나타나는 위치’와 ‘한국어 유음의 이음들’이 절묘하게 결합하여 두 개의 영어 유음을 구별하여 인지하고 더 나아가 두 개의 L2 유음의 범주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L1 음과 L2 음의 인지적 또는 음향적 대응을 통한 예측을 넘어서 제 3의 영향 요소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⁸⁾.

3.2. L1의 영향이 있을 때 L2 경험이 늘어남에도 L2 음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3.1.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L1의 영향이 있다는 것은 L2 학습자가 습득하려

18)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영어 단어 내에서 유음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른 한국인 피실험자들의 정확도는 어두에서 78.00%, 어두복자음에서 83.00%, 어중에서 88.13%로 /l/과 /ɫ/을 구별하여 인지할 기제가 없는 어두에서 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하지만 어두에서조차도 다른 위치에서의 80%가 넘는 정확도의 영향을 받아 80%에 근접하는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어에서와 같이 유음을 한 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두 개의 영어 유음을 인지할 때 한국인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호주에서 일 년 정도를 거주한 10명의 20대 연령의 일본인 대학생, 영어연수생 그룹에 대해서 동일하게 실시한 인지 실험 결과는 전체 정확도가 69.98%로 나와 70%를 넘지 못했다. 단어 내에서 유음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른 결과도 어두 74%, 어두복자음 66.25%, 어중 69.69%로 모두 한국인 그룹에 비해 뒤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p=0.016$). 이는 일본어 유음은 이음도 없고 영어 단어 내에서 유음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영어 유음 /l/과 /ɫ/을 구별해 주는 기제도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일본인 그룹의 결과는 SLM이나 PAM의 예측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Park, 1997: 159-163).

는 L2 음에 대해 대응하는 L1 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SLM에서는 ‘유사한 음’이 PAM에서는 ‘CG’나 ‘SC’ 동화 범주에 속하는 L2 음들을 L2 학습자들이 습득할 때 나타날 것이다. Flege는 ‘유사한 음’은 L1 음이 가지고 있는 기존 범주의 영향으로 쉽게 L2 음의 범주를 새로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Best도 CG나 SC 동화에 대해서 각각 ‘적당한(moderate) 식별력’과 ‘약한(poor) 식별력’을 예측하고 있어 L2 경험이 늘어 도 쉽게 새로운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절에서 상정하는 경우를 두 이론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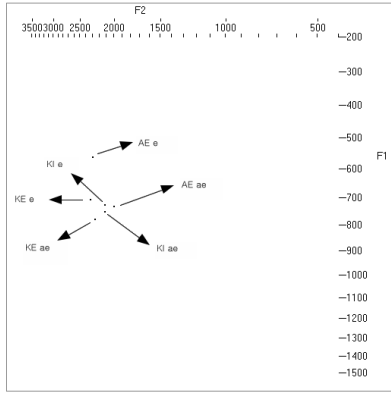
Park(1997)은 호주영어의 모음 /e/와 /æ/에 대한 한국인 다경험 그룹(KE: 5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5명의 20대와 30대 한국인)과 한국인 소경험그룹(KI: 1년 이하 호주에 거주한 5명의 20대 한국인)의 산출 실험¹⁹⁾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과 관련하여 SLM에서는 두 개의 영어 모음이 한국어의 /ㅛ/-/ㅜ/ 합류 모음에 대해 각각 ‘유사한 음’으로 예측될 수 있고 PAM에서는 SC 동화 범주나 식별력이 높지 않은 CG 동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그림 1>²⁰⁾과 같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인 그룹의 /e/와 /æ/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인 소경험 그룹과 다경험 그룹의 /e/와 /æ/는 거의 붙어 있다. 물론 KE 그룹의 경우 그 거리가 조금 떨어져 KI 그룹에 비해 두 개의 L2 모음에 대해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호주인의 /e/와 /æ/ 범주에 근접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실험 결과는 한국어의 /ㅛ/와 /ㅜ/의 합류(merger)된 모음이 대응하는 영어의 /e/와 /æ/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L2 모음인 /e/와 /æ/ 음의 범주 형성을 막아 호주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한 KE 그룹의 피실험자들 까지도 여전히 이 두 모음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는 SLM과 PAM 모델의 예측이 제대로 되었음을

19) 두 한국인 그룹의 각 피실험자에게 ‘head’와 ‘had’라는 단어를 5번씩 읽게 하여 처음 것과 다섯 번째 것을 버리고 나머지 세 개 토큰의 모음 /e/와 /æ/의 제1 포먼트(F1)와 제2 포먼트(F2) 값을 구하였고 두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호주인 그룹은 같은 단어들을 각 세 번 씩 읽게 하여 모든 토큰들에서 F1과 F2 값을 측정하였다(Park, 1997: 58, 67-73).

20) <그림 1>에서 호주인 그룹의 산출된 /e/와 /æ/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한국인 그룹이 남녀가 섞여 있는 반면에 호주인 그룹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정규화(normalization)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말해주고 있다.



〈그림 1〉 한국인 다경험 그룹(KE), 소경험 그룹(KI), 호주영어화자(AE)의 /e/와 /æ/ 산출 결과(Park, 1997: 73)

3.3. L1의 영향이 없을 때 L2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L2 음을 L2 모어 화자의 수준에 가깝게 습득하는 경우

L1의 음운 체계에 L2 음에 대응하는 음이 없을 때는 L1 음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L1 음의 영향도 없을 것이다. L2 학습자는 L1 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런 경우의 L2 음을 SLM은 ‘새로운(new) 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Flege는 ‘새로운 음’에 대해서 L1 음의 부정적인 간섭이 없기 때문에 L2 학습자의 L2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이 새로운 L2 음의 범주를 새롭게 형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초기의 PAM(Best, 1993)에서는 짝이 되는 L2 음 두 개가 모두 대응하는 L1 음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범주화 불가능(UNC)으로 분류하였는데 ‘약한’이나 ‘적당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Best(1995)에서는 이 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1) 짝이 되는 두 개의 L2 음 모두 대응하는 L1 음이 없는 경우(Both Uncategorizable: UU)와 2) 짝이 되는 두 개의 L2 음 중 하나는 대응하는 L1 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비범주화 대 범주화(Uncategorized vs. Categorized: UC)

의 두 부류로 나누었다. UU의 경우에는 ‘약한’이나 ‘적당한’ 식별력을 갖고, UC의 경우에는 ‘훌륭한’ 식별력을 가져 경우에 따라(특히 UC) 새로운 L2 음의 범주 형성이 쉬울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론을 수정하였다.

재수정된 PAM-L2(Best & Tyler, 2007)에서는 이 경우를 두 개의 L2 음 모두가 대응하는 L1음이 없는 것으로 상정(Uncategorized)하고 이 두 L2 음 중 한 개 또는 두 개의 새로운 음소 범주가 비교적 쉽게 인지되고 학습될 것이라고²¹⁾ 예측하고 있다. 이 언급은 ‘훌륭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L2 음의 범주 형성도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est의 PAM의 변천을 보면 SLM의 영향을 받아 Flege가 주장한 대로 ‘새로운’ L2 음에 대해 L2 학습자가 이 음의 범주를 중국어에는 형성할 것이라는 쪽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 화자가 영어의 /æ/를 학습할 때 본 절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어의 모음 체계는 5모음 체계(/i/, /e/, /a/, /o/, /u/²²⁾이기 때문에 영어의 /æ/는 일본어 화자들에게는 ‘새로운’ 음으로 인지될 것이다. 모음 사각도 상에서 /æ/는 /e/와 /a/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SLM에서는 /æ/를 ‘새로운’ 음으로 분류할 것이고 수정된 PAM(Best, 1995)에서는 이 경우를 /e/-/æ/ 또는 /æ/-/a/의 L2 쌍으로 묶는 ‘UC’ 동화 범주로 분류하여 ‘훌륭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어느 쪽의 이론이든 L2 학습자가 L2 경험이 쌓임에 따라 용이하게 L2 음인 /æ/의 음소 범주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Park(1997)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을 일본인 다경험 그룹(JE: 5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5명의 30대와 40대 일본인)과 일본인 소경험 그룹(JI: 1년 이하 호주에 거주한 5명의 20대 일본인)으로 나누어 호주영어 모음 /e/와 /æ/에 대한 산출 실험²³⁾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²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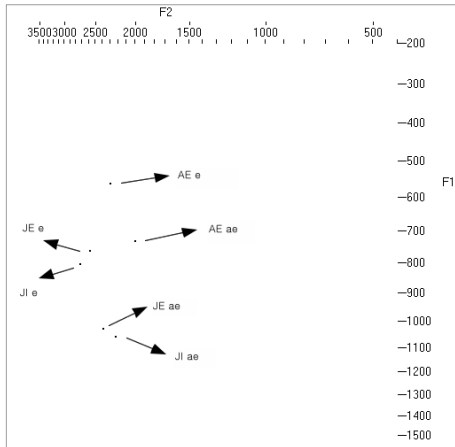
21) ~ then one or two new L2 phonological categories may be relatively easy to learn perceptually (Best & Tyler, 2007: 30).

22) 일본어의 모음 /u/는 일본 내에서 [u]에 가깝게 조음되는 지역이 있고 [u]에 가깝게 조음되는 지역도 있다(박시균, 2013: 129 참조).

23) 두 일본인 그룹의 각 피실험자에게 ‘head’와 ‘had’라는 단어를 5번씩 읽게 하여 처음 것과 다섯 번째 것을 버리고 나머지 세 개 토큰의 모음 /e/와 /æ/의 제1 포먼트(F1)와 제2 포먼트(F2) 값을 구하였고 두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호주인 그룹은 같은 단어들을 각 세 번씩 읽게 하여 모든 토큰들에서 F1과 F2 값을 측정하였다(Park, 1997: 58, 67-74).

24) <그림 2>에서 호주인 그룹의 산출된 /e/와 /æ/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그림 1>에서

<그림 1>의 한국인 그룹의 결과와는 달리 <그림 2>의 JE, JI 그룹 모두 /e/와 /æ/의 간격이 호주인(AE) 그룹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범주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JE의 /e/와 JI의 /e/가 붙어 있고 JE의 /æ/와 JI의 /æ/도 서로 붙어 있어 이미 JI 그룹의 구성원들도 /e/와 /æ/에 대한 범주 형성을 끝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호주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영어 모음에 대해 범주 형성을 끝냈다고 하는 것은 L1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L2 음에 대한 범주 형성이 완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 결과는 SLM과 수정된 PAM의 예측²⁶⁾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림 2> 일본인 다경험 그룹(JE), 소경험 그룹(JI), 호주영어화자(AE)의 /e/와 /æ/ 산출 결과(Park, 1997: 73)

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그룹이 남겨져 섞여 있는 반면에 호주인 그룹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정규화(normalization)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5) 물론 일본인 피실험자들도 호주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æ/모음의 발음을 듣고 미리 /æ/ 모음의 범주 형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영어 사용 국가가 아니고 영어권 국가에 가 본 경험이 없는 일본인의 경우 대개 had를 [하드]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æ/모음의 범주 형성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6) 초기의 PAM의 예측은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3.4. L1의 영향이 없을 때 L2 경험이 늘어남에도 L2 음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L1의 음운 체계에 L2 음 중에 대응하는 음이 없을 때는 L1 음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L1 음의 영향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에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SLM의 ‘새로운’ 음에 대한 예측이 바로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각은 본 절에서 상정하는 경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PAM에서는 L1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상정하고 있는데 초기 PAM(Best, 1993)에서는 UNC와 NA 범주, 개정된 PAM(Best, 1995)에서는 UU와 NA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개정된 PAM에서의 UC 범주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되는 두 개의 L2 음 중 한 개는 L1 음 중 대응하는 것이 없지만, 다른 한 개는 L1의 영향을 받는다(L1 음에 동화된다면) 본 절의 상황과 일치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L2 음 중 한 개는 L1 음들과 전혀 유사하지 않고 또 다른 L2 음은 L1 음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UC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UC 범주에 대해서는 ‘훌륭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절에서 상정하는 경우와 맞지 않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다.

UNC(=UU)와 NA 범주²⁷⁾ 중에 NA 범주는 해당 L2 음들이 L2 학습자들에게 언어음으로 간주되어 인지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어서 본 절에서 제시하는 상황과 맞지 않고 L2 음 학습 상황에서 L2 음을 언어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범주는 본 절에서 상정하는 상황을 예측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UNC(=UU) 범주만 해당되는데 UNC 범주의 L2 음들에 대해서 약하거나(poor) 적당한(moderate)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본 절에서 상정하는 경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L2 범주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3.절에서 언급했듯

27) PAM에서는 NA 범주가 ‘양호한(good)’ 식별력 또는 ‘적당한(moderate)’ 식별력을 갖는다고 본다.

이 재수정된 PAM-L2(Best & Tyler, 2007)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홀륭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절이 상정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LM과 최신의 PAM 모델은 본 절이 상정하는 경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이 상정하는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박시균, 하타나카 츠유미(2012)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호주인의 한국어 단자음 및 중복자음 산출 실험²⁸⁾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지 2-3년이 된 한국어 중급 수준의 호주대학생 그룹(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20대의 4명의 대학생)의 한국어 단자음 대 중복 자음의 길이 비를 측정 한 후 이것을 한국인 그룹(표준 한국어를 구사하는 20대의 4명의 한국 대학생)의 단자음 대 중복 자음의 길이 비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박시균, 하타나카 츠유미, 2012: 54-61).

영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은 철자법 상으로는 중복자음이 있지만(예) summer[samə], inning[ɪnɪŋ]) 음운적으로는 중복자음을 발음하는 기저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절에서 제시하는 L1 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에 부합한다. 만약 SLM(‘새로운’ 음) 및 PAM/PAM-L2(UNC=UU 또는 UC)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중급 실력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호주인 그룹은 한국어의 단자음 대 중복자음의 길이의 범주를 익혀 한국인 그룹과 큰 차이가 없는 길이 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SLM과 PAM-L2의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산출 실험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28) 본 실험에서는 유음(일리-이리), 비음(감:면-가:면, 간난-가난), 폐쇄음(갔다-가다, 학과-학과, 합본-하본), 마찰음(있소-이소), 현혹 단어쌍(계획-기:획, 가정-가장, 노래-도:래)으로 구성하여 무작위로 섞은 단어 목록을, 호주인 그룹과 두 개의 일본인 그룹(① 소경험 그룹: 한국어 학습 기간이 공히 11개월이 된 20대의 3명의 일본인, ② 다경험 그룹: 한국어 학습 기간이 6년 내외인 30대의 3명의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그룹에게 주었다. 각 그룹별로 피실험자들이 각 단어를 세 번씩 읽게 한 후 단어별로 세 번 읽은 자료의 단자음과 중복자음의 길이 부분을 측정 한 후 세 번의 평균값을 내어 단자음 대 중복자음의 길이 비를 측정하였다.

〈표 2〉 한국인 그룹과 호주인 그룹의 단자음, 중복자음 발음 길이 비교
(박시균, 하타나카 츠유미, 2012: 60-61)

		한국인	호주인	p-value
유음	ll : r	173.54 : 45.64(ms) (3.88 : 1)	85.64 : 41.51 (2.06 : 1)	0.134
비음	mm : m	153.32 : 72.84 (2.17 : 1)	118.76 : 76.81 (1.52 : 1)	0.036*
	nn : n	168.50 : 52.92 (3.22 : 1)	111.38 : 63.23 (1.86 : 1)	0.016*
마찰음	ss : s	196.96 : 100.94 (1.95 : 1)	183.51 : 163.20 (1.14 : 1)	0.003**
파열음 (VOT 29) 제외)	tt : d	189.43 : 58.82 (3.38 : 1)	184.00 : 123.42 (1.83 : 1)	0.122
	kk : g	177.27 : 50.91 (3.62 : 1)	151.45 : 125.80 (1.45 : 1)	0.054 (marginal)
	pp : b	168.26 : 66.53 (2.54 : 1)	180.76 : 91.71 (2.03 : 1)	0.618

결과를 보면 한국인 그룹의 경우 최소 1.95:1에서 최대 3.88:1의 길이비가 나오는 데 반해서 호주인 그룹의 경우는 최소 1.14:1에 그쳤고 최대가 2.06:1을 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도 총 7개의 비교 쌍 중에서 4개(marginal 포함)나 되었다. 또 호주인 그룹의 중복자음 : 단자음의 길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인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중복자음의 길이가 짧거나(ll:r, mm:m, nn:n), 단자음의 길이가 길거나 해서(ss:s, tt:d, kk:g, pp:b) 아직 중복자음과 단자음의 길이 차이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호주인 그룹이 L2인 한국어에서 새롭게 접한 단자음과 중복자음의 ‘길이’ 범주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SLM이나 PAM/PAM-L2에서 제시하는 설명과 예측을 적용하였을 때 본 결과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³⁰⁾. SLM이나 PAM은

29) VOT는 ‘성시작시간(Voice Onset Time)’을 얘기하는데 폐쇄음에서 파열이 일어난 직후부터 그 다음에 오는 유성음의 성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30) 초기 PAM의 UNC(=UU) 범주로 분류하고 ‘약한(poor)’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때에만 본 실험의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결과를 UNC 범주로 분류하여 예측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떠오른다. UNC는 두 개의 L2 음이 모두 L1 음에 동화되지 않는, 즉 L1 음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음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L2 학습자가 L2 음을 습득할 때 L1 음의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L2 학습자가 L2 음을 학습하는 것이 쉬울지 또는 어려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L2 음의 범주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론들이다. 거의 모든 상황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맞아야 하지만 필자가 상정한 네 개의 경우 중 3.1.과 3.4.의 두 개의 상황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를 4장에서 하고자 한다.

4. 논의

4.1. 제3의 요소의 존재

필자는 2장 말미에서 L2 음의 습득과 관련하여 SLM과 PAM, 두 이론을 관통하는 두 개의 큰 요소로 ‘L1 음의 전이 혹은 영향’ 그리고 ‘L2 경험’을 들었다. L1 음의 영향이 강하면³¹⁾ L2 경험이 증가해도 새로운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L1 음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접하는 L2 음의 범주를 L2 경험의 증가와 함께 비교적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요소 사이의 상대적 관계였다. 즉 L1의 전이가 강하면 L2 경험이 증가해도 L2 음 범주의 형성이 어렵고 L1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L2 경험의 증가와 함께 L2 음 범주의 형성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L2 음 형성과 관련하여 ‘L1의 영향’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

한국어의 단자음의 길이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에게, 영어에 존재하는 ‘영어 (단)자음의 길이’라는 L1 음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동화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단자음을 L1 음에 동화될 수 있는 음으로 분류한다면 오히려 UC 범주로 분류가 되어 L2 학습자는 ‘훌륭한’ 식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렵지 않게 한국어의 단자음과 중복 자음의 길이 범주를 습득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험 결과는 이 예측도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1) L1 음과 L2 음이 음향/음성적으로 거의 완전히 동일해서 L2 학습자가 새로 접하는 L2 음을 자신의 L1 음운 체계의 대응하는 L1 음과 동일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는 새로 접하는 L2 음의 범주를 형성할 필요가 없이 대응하는 L1 음의 범주를 L2 환경에서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고, 'L2 경험'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는 'L1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제동이 걸렸던 것이 바로 3.1.의 'L1의 영향이 있음에도 L2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L2 음을 L2 모어 화자의 수준에 가깝게 습득하는 경우'와 3.4.의 'L1의 영향이 없을 때 L2 경험이 늘어남에도 L2 음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3.1.의 경우에는 'L1의 영향력'을 뚫고 새로운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우리는 'L1의 영향'에 비해 열세였던 'L2 경험'에 힘을 더해 주는 다른 '제3의 긍정적 요소'가 있어 'L1의 영향'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뚫고 L2 학습자가 L2 음을 습득했다는 새로운 추정을 할 수 있다. 3.4.의 경우에는 'L1의 영향'이라는 강력한 요소가 작용을 하지 않고 'L2 경험'이라는 L2 음 습득에 '긍정적 요소'가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2 학습자는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우리는 'L2 경험'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상쇄하는 '제3의 부정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3.2.와 3.3.의 두 경우에도 이 제3의 요소가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그 힘이 미약하여 SLM이나 PAM의 예측이 맞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추정을 통해 우리는 왜 SLM과 PAM의 예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두 이론이 기둥으로 삼는 'L1의 영향'과 'L2 경험' 만을 가지고는 L2 음 습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든 부정적으로 작용하든 제3의 요소가 있어야만 이 이론들의 약점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4.2. 제3의 요소와 유표성(markedness)

그러면 이 '제3의 요소'란 무엇일까? 단순히 '이것이다'라고 언급하기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3.1.에서 유사한 조건(호주에 거주한지 1년 내외의 대학생)에 있는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인 학습자보다 영어의 유음 /r/과 /l/을 더 잘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SLM과 PAM에 의하자면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영어의 두 유음에 대응하는 유음이 각각 한 개 밖에 없

기 때문에 똑같이 ‘유사한’ 음(SLM)이나 ‘CG’ 또는 ‘SC’ 동화범주(PAM)로 예측할 수밖에 없고 두 언어권 화자의 인지결과도 유사하게 나와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왜 한국어 화자들이 일본어 화자들보다 영어의 두 유음을 더 잘 구별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3의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 제3의 영향 요소인 ‘영어 단어에서의 유음이 나타나는 위치’와 ‘한국어 유음 /ㄹ/의 이음들’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긍정적 요소’³²⁾를 한국인 학습자는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인 학습자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긍정적 요소의 성격인데 한국인 학습자의 긍정적 요소는 ‘음성 층위’에서 나타나는 ‘이음’들과 ‘단어 내의 유음의 위치’라는 ‘음소 배열적 성격’이 결합된 것이었다. 즉 ‘제 3의 요소’는 단순히 ‘음소 층위’내지는 ‘음성 층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성격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4.의 경우도 ‘제 3의 요소’가 작용해 SLM(‘새로운’ 음)이나 PAM(UNC=UU 또는 UC)의 예측이 맞지 않게 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호주 학습자들이 3년 내외의 한국어 학습 경험(L2 경험)을 갖고 있었고 특히 ‘한국어 중복자음의 길이’의 경우 L1 음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 있어 한국어의 단자음과 중복자음의 길이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 경우에 SLM이나 PAM의 예측이 맞지 않게 했던 부정적으로 작용한 제3의 요소는 바로 ‘자음의 길이(length)’³³⁾라는 요소였다. 이 요소는 넓게 보아 ‘음소 층위’나 ‘음성 층위’에 포함되는 한 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 음소/음성과는 별개의 ‘초분절적 요소(suprasegmental factor)’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제3의 요소’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해보도록 하자. 제3의 요소는 ‘음소 층위’나 ‘음성 층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음소 층위나 음성 층위에 결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소배열’이나 ‘초분절적 요소’와도 관련 있는 광범위한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32) 이 두 개의 ‘긍정적 요소’를 통해, ‘음운 층위’에서는 영어의 /l/과 /ɹ/을 구별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한국어 화자들이 ‘음성 층위’ 및 ‘음소 배열 층위’에서 영어의 음소가 아닌 음성인 [l]과 [ɹ]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이 음성 및 음소 배열 층위에서의 풍부한 정보가 ‘음운 층위’에서 영어의 /l/과 /ɹ/을 더 잘 구별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3) 이는 일반적으로는 모음의 길이까지를 포함한 ‘분절음의 길이’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때 제3의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어느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를 판정하기 위해 ‘유표성(markedness)’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표성’이란 무엇일까? 유표성이란 ‘언어학’(Batistella, 1996)과 ‘제2언어 습득’(Ortega, 2009)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언어학에서는 음운론³⁴⁾, 형태론, 통사론 등에서 이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도 사용한다. 무표적인(unmarked) 것은 가장 단순하고(simple),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가장 흔하게(most frequent) 사용되는 반면에 유표적인(marked) 것은 가장 복잡하고(most complex), 일부 언어에서 아주 드물게(most rare) 사용된다. 또한 유표적인 것들 중 많은 경우에 있어 유표적인 것은 무표적인 것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무표적인 것과 유표적인 것 사이의 유표성 관계는 함축적(implicational)이고 단방향적(unidirectional)이다(Ortega, 2009: 37).

이 유표성의 예가 잘 나타나는 것이 독일어를 L1으로 하는 독일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의 ‘bag’와 ‘back’을 발음하는 경우이다. 독일인 영어 학습자는 이 두 단어의 어말 자음을 모두 [k]로 자주 산출한다. 영어에서는 어말 위치에서 유성-무성 자음이 모두 나타나는 반면에 독일어에서는 어말 위치에서 유성 자음을 무성화시켜 무성음으로 산출하는 ‘무성음화’가 적용되어 어떤 유성자음도 이 위치에서는 모두 ‘무성음’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즉 독일어에서는 ‘유표적’인 ‘유성자음’이 어말 위치에서 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L1의 ‘무성음화’가 적용되어 영어의 어말에 오는 ‘유표적’인 ‘유성자음’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영어를 모어로 하는 독일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독일어에서 어말에 나오는 ‘무표적’인 ‘무성자음’을 조음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미 모국어에 어말에서 ‘유표적’인

34) 음운론에서는 유성 폐쇄음과 무성 폐쇄음의 예가 있다. 세계의 모든 언어는 무표적인 무성 폐쇄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 일부의 언어만 유/무성 폐쇄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성 폐쇄음 없이 유표적인 유성 폐쇄음만을 자음 목록에 가지고 있는 언어는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유/무성 폐쇄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L1을 습득할 때는 무표적인 무성음부터 배운다. 또 많은 언어에서 무성음화(devoicing)라는 자연스런 음운 현상도 나타나는데 유성음이 어느 특정 위치에서는 무성음으로 소리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유표적 자질(marked feature)을 가진 ‘유성음’은 중화되고 무표적 자질(unmarked feature)을 가진 ‘무성음’이 대신 사용된다는 것이다(Ortega, 2009: 37).

유성자음뿐만 아니라 ‘무표적’인 무성 자음을 조음하는 기제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Eckman, 2004).

우리의 논의로 돌아가 보자. 필자는 3.1.절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유음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긍정적 요소로 L1의 ‘음성 층위’에서 나타나는 ‘이음’들과 ‘단어 내의 유음의 위치’라는 ‘음소 배열적 성격’, 그리고 그 결합을 지목했었다. 이 제3의 요소들은 한국어의 유음과 영어의 유음이라는 음소 대 음소만을 비교하고 예측하는 SLM과 PAM의 관점에서의 비교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는 더 확대된 비교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영어의 /l/과 /ɹ/이라는 두 개의 유음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습득하도록 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L1과 L2의 관계에서 영어의 두 유음을 ‘무표적(unmarked)’으로 만드는 혹은 ‘유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인 것이다. L1의 영향이 있는 경우는 이처럼 목표로 하는 L2음을 ‘무표적’으로 만드는 혹은 ‘유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들, 즉 ‘제3의 긍정적 요소들’이 그 힘을 발휘할 때 궁극적으로는 L2 음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제3의 요소들’이 목표로 하는 L2 음을 ‘유표적(marked)’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들은 ‘부정적인 제3의 요소들’이 될 것이고 이들의 영향으로 L2 학습자는 목표로 하는 L2 음의 범주를 형성하는 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4.절의 예에서는 L1의 영향이 없음에도 중급 호주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단자음대 중복자음의 길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부정적 제3의 요소’로 ‘자음의 길이’를 들었다. 이는 3.1.절의 ‘제3의 긍정적 요소’와 반대의 지점에서 있는데 호주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L2인 한국어의 자음의 단자음과 중복자음의 길이 차이의 구별은 ‘유표적’ 요소인 것이다. 만약 어느 요소가 ‘유표적’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제3의 요소’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3.4.절의 경우에는 L1에서 L2의 ‘자음의 길이’라는 ‘초분절적 요소’에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요소(L1의 영향/전이)가 없었기에 ‘자음의 길이’, 즉 L2 음(의 길이 자질)의 ‘유표적 성질’ 자체가 ‘부정적인 ‘제3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5. 결론

전통적인 CAH에 기반을 둔 Flege의 SLM과 Best의 PAM에서는 L2 학습자의 L2 음 습득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결정적 요소로 'L1의 영향'과 'L2 경험'을 꼽았으며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 L2 학습자들이 L2 음을 제대로 습득할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 두 이론이 L2 음 습득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 두 개의 이론을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3.1.과 3.4.의 경우)이 있었다. 필자는 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기존의 두 이론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제3의 요소'의 영향을 새로이 상정하였다.

L2 음을 습득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제3의 요소'가 'L1의 영향'과 'L2 경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때 '긍정적 제3의 요소'라 함은 L2와 L1의 관계 내에서 L2의 습득하고자 하는 음이나 음의 자질(feature)을 무표적(unmarked)으로 만드는, SLM과 PAM의 두 이론에서는 'L1의 영향'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L1이나 L2의 모든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부정적 제3의 요소'라 함은 반대로 L2 음이나 음의 자질을 '유표적(marked)'으로 만드는 모든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3.4.절의 호주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단자음 / 중복자음의 길이 차이 습득에서처럼, 만약 L1에 제3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표로 하는 L2 음이나 음의 자질(예를 들어 음의 '길이')의 '유/무표성'이 바로 '부정적/긍정적 제3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표성과 제3의 요소와의 관계 및 'L1의 영향', 'L2 경험', '제3의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좀 더 치밀하고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은 성찰과 진전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박시균(2013), 『한국어 음성 음운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시균, 하타나카 츠유미(2012), 『일본인과 호주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겹자음 길이 비교연구』, 언어학 64, 49-76.
- 정양수, 김영은(2005), 『영어 교수 학습의 원리』, 한신문화사.
- Batistella, E. L. (1996), *The Logic of Marked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Best, C. T. (1993), Language-specific developmental changes in non-native
speech perception: A window on early phonological development.
In B. de Boysson-Bardies., S. de Schonen., & P. Jusczyk (Eds.),
*Developmental Neurocognition: Speech and Face Processing in
the First Year of Life*. Kluwer.
- Best, C. T. (1995), Learning to perceiv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In C. Rovee-Collier & L. Lipsitt (Eds.), *Advances in Infancy
Research*. Ablex Publishers..
- Best, C. T. & Tyler, M. D. (2007), Nonnative and second-language speech
perception: Commonalities and complementarities. In O.-S. Bohn &
M. J. Munro(Eds.), *Language Experience in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In Honor of James Emil Flege*. John Benjamins
Publishing.
- Bohn, O. S. & Flege, J. E. (1992), The production of new and similar
vowels by adult German learners of English,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4(2), 131-158.
- Eckman, F. R. (2004), From phonemic differences to constraint rankings:
research on second language phonolog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6, 513-549.
- Flege, J. (1987a), The production of “new” and “similar” phones in a foreign
language: Evidence for the effect of equivalence classification,

Journal of Phonetics 15, 47-65.

- Flege, J. (1987b), Effects of equivalence classification on the production of foreign language speech sounds. In A. James & J. Leather (Eds.), *Sound Pattern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ris.
- Flege, J. E. (1995),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theory, findings, and problems. In W. Strange (Eds.), *Speech Perception and Linguistic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York Press.
- Flege, J. E., Bohn, O. S., & Jang, S. (1997), Effect of experience on non-native speakers'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vowels, *Journal of Phonetics* 25, 437-470.
- Flege, J. E. & Liu, S. (2001), The effect of experience on adults'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4), 527-552.
- Flege, J., Oh, G. E., Guion, A. S. & Aoyama, K. (2011), A one-year longitudinal study of English and Japanese vowel production by Japanese adults and children in an English-speaking setting, *Journal of Phonetics* 39, 156-167.
- Fowler, C. A., Sramko, V., Ostry, D. J., Rowland, S. A., & Halle, P. (2008), Cross language phonetic influence on the speech of French-English bilinguals, *Journal of Phonetics* 36, 649-663.
- Jun, S. A. & Cowie, I. (1994), Interference for 'new' versus 'similar' vowels in Korean speakers of English,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3, 117-130. Columbus: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the Ohio State.
- Krashen, S. D. (1978), Individual variation in the use of monitor. In W. C. Ritchie(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cademic Press.
- Krashen, S. D.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Pergamon Press.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cLaughlin, B. (1987), *Theori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Edward Arnold.
- McLaughlin, B. (1990), “Conscious” versus “subconscious” learning, *TESOL Quarterly* 24, 617-634.
- Ortega, L. (2009),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utledge.
- Piske, T., MacKay, I. R. A., & Flege, J. E. (2001), Factors affecting degree of foreign accent in an L2: A review, *Journal of Phonetics* 29, 191-215.
- Whitman, R. & Jackson, K. L. (1972), The Unpredictability of contrastive analysis, *Language Learning* 22, 191-197.
- Park, S.-G. (1997), Australian English Pronunciation Acquisition by Korean and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Ph.D. Thesis, Department of English,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국문초록】

L2 음운 습득 분야에서 L1의 전이는 연구의 중심에서 있었다. 대조분석가설(CAH)을 주창한 Lado(1957) 이후 'L1의 전이'는 L2음 습득 모델들에서도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두 개의 모델이 이 분야의 학자들에게 가장 선호되고 영향을 끼쳐 왔는데 첫 번째 모델은 Flege(1987a, 1987b)가 주창한 '음성 학습 모델(SLM)'이고 두 번째 모델은 Best(1993, 1995)가 주창한 '지각동화 모델(PAM)'이다. 이 두 모델은 모두 'L1의 전이'와 'L2 경험'을 L2음 습득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L1의 전이'와 'L2 경험'과 관련하여 네 개의 다른 경우를 상정하여 필자의 실험들로 이 두 모델을 검증하였다. 네 개의 경우 중 두 개는 이 두 개 모델의 예측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두 개는 예측이 결과와 대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예측이 성공적이지 못한 두 개의 경우에는 '제3의 요소'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 제3의 요소는 '유표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제3의 요소'가 L2 학습자들이 L2 음을 습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는 목표로 하는 L2음이 '무표적'인 방향에서 있었고 반대로 '제3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L2음은 '유표적'인 방향에서 있었다. 'L1의 전이'와 'L2 경험'이 L2 음 습득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제3의 요소'도 이 두 요소와 동등하게 중요하다.

주제어 : L2 음 습득, 음성학습 모델, 지각동화 모델, 유표성, L2 음성학, L2 음운론

【Abstracts】

A study on the phonetic/phonological differences of Korean, English and Japanese from the SLM & PAM perspectives

See-Gyoon PARK

L1 transfer has been a main theme in the area of L2 sound acquisition. Since Lado(1957) advocated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CAH) where 'L1 transfer' was a main factor, L1 transfer has been a main factor in the following L2 sound acquisition models. Two models have been favorite and influential to the scholars in this area. One was Speech Learning Model(SLM) asserted by Flege(1987a, 1987b). The other was Perceptual Assimilation Model(PAM) claimed by Best(1993, 1995). Both models put the emphasis on 'L1 transfer' and 'L2 experiences' as main factors of L2 sound acquisition.

In this paper, I verified these two models with my own experiments for four different cases in association with L1 transfer and L2 experiences. Out of four cases two were explained by the two models' predictions but the other two were not successful with their predictions. The third factors, whether those are 'positive' or 'negative', we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two models' insufficient predictions. Also the third factors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markedness'. If the factors are 'positive' those are related to 'unmarked' direction of the targeted L2 sounds and if

'negative', those are related to 'marked' direction of them. Although 'L1 transfer' and 'L2 experiences' are important factors in L2 sound acquisition, the third factors are equally important to the other factors. The detailed relationship amongst these three factors should be resolved in future researches.

Key words : L2 sound acquisition, SLM, PAM, markedness, L2 phonetics, L2 phonology

이 논문은 2015년 1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